인천, 전통시장 식품위생우수업소 117곳 선정

인천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의 식품위생우수업소 117곳을 선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해 선정된 119곳에 대한 위생실태를 재평가한 결과, 110곳의 업소가 재지정됐다. 강화도의 강화풍물시장(사진) 내 7개 업소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재지정 곳은 시장별로 신포국제시장 11개소(중구), 송현시장 6개소(동구), 신기시장 21개소(미추홀구) 등이다.

지역 패트롤

‘나라장터엑스포’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대의 전시업체인 킨텍스가 공공조달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코리아 나라장터엑스포 2025’의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엑스포 누리집에서 진행하며 11월 29일 이전까지 참가 신청을 완료하는 기업에게는 조기 할인을 제공한다. 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는 조달산업 관련기관과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고 있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나라장터 계약실적 기준 상위 기관을 우선 초청하며 대기업 담당자 초청과 함께 참가기업이 희망하는 수요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킨텍스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부스를 방문하는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는 등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

광주, 산월IC 순천방향 누수 공사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18일까지 호남고속도로 산월IC 순천방향 진입도로(신창동 708-10번지)의 송수관로 누수 복구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 지점은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의해서 운행해야 한다.

이번 공사는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순찰반이 해당 도로에서 누수를 발견, 광주상수도사업본부에 제보한 것에 따른 조치다.

누수 지점은 호남고속도로 산월IC 순천방향 진입도로 지반 7m 아래에 위치한 봉산배수지 계통 송수관로이며 수완지구, 첨단1·2지구, 신창동 일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로이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2일까지 송수관로 누수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8일까지 누수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또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차량·로봇신호수, 안내간판 등을 주·야간 지속 배치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및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광주=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동인천 낭만축제·놀이터’ 개최

인천관광공사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가족, 어린이,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인천 낭만축제&낭만놀이터를 개최한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동인천 낭만축제&낭만놀이터’는 오는 16~20일까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과거 번성했던 동인천의 향수를 자극하며 현재의 활기찬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동인천 낭만놀이터는 워킹볼·모래놀이·에어 바운스 등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오는 19~20일에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동인천 낭만축제가 열린다.

19일에는 송현시장·중앙시장·배다리공예상가 상인들이 참여해 먹거리와 공예품을 판매하는 낭만 2일장과 김완선·나태주·김혜연 등이 출연하는 낭만 콘서트가 열린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청송에서 쉼’ SNS 콘텐츠 공모

경북 청송군은 ‘청송에서 쉼표, 청송에서 쉬어가기’를 주제로 ‘2024 청송군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송의 새로운 힐링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 청송군의 전역이 포함된 ‘청송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그리고 10월 30일부터 5일간 열리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 등 청송군에서 즐길 수 있는 쉼의 매력을 주제로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청송군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부문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으로 나뉜다.

참가작들은 홍보 효과, 활용성,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각 1점, 우수 각 2점, 장려 각 10점, 총 26점의 입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송=이재근 기자 news1113@viva100.com

과천, 문화체육시설·도서관 건립 미뤄지나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영향

총사업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 대폭 강화
투자 재심사·타당성 조사 불가피
6개월~1년 걸려… 준공 지연 예상

경기 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은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 돼 실제 인상된 물가 상승폭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더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도서관 건립사업 등은 행정안전부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준공 시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입지선정 문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약 2년간 용역이 중지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최초 투자심사 대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건설비용이 대폭 상승, 총사업비가 약 68.8% 증가했다.

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은 당초 473억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물가 상승으로 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각각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 명확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 심사제도 취지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이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억~60억원은 자체 심사, 60억~200억원은 경기도 심사, 2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선행해야 하며 실시설계 확정 이후 총사업비가 30%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천=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메밀꽃밭 사이로 ‘가을 산책’ 13일 와흘메밀문화제가 열리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메밀밭에서 나들이객과 관광객들이 메밀꽃밭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 국가산단 농민에 공익직불금 지급 길 열리나

국민권익위, 농림부에 의견서 제출
“보상 전 지급 위해 법률 정비 필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해온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지역 내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에 대해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산업단지 편입 지역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 등에 따라 개발사업 예정지로 고시된 토지 중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단 편입지역의 농지전용 완료된 농지는 여전히 농업에 이용되고 있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편입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공익직불금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지역 주민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지원,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 건의, 국회 사무처 법률 개선 제안을 추진해왔다.

시는 조속히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현재 스마트 국가산단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지에 대한 공익직불금 지급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정 지급 대상과 총액은 200여 농가, 2억여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시는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산단 편입지역 재산세 감면을 확정했으며, 편입지역 축산업 폐업 보상 지급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광명, 평생학습 플랫폼 이용자 반년 만에 17배 ↑

광명시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광명e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서비스를 개시한 ‘광명e지’ 이용자가 6개월여 만에 1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합플랫폼 구축 이전 ‘광명e지’ 월평균 이용자는 2만 1천 명에서 구축 이후 월평균 35만 8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인생플러스센터 등 신규 교육 운영기관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광명e지’에서 수강신청과 결제를 할 수 있어 도입 비용 4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여성비전센터,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등 기존 교육 운영기관들도 향후 홈페이지 고도화나 유지관리비 예산을 기관별로 연간 6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명e지’는 시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과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망라해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후 광명자치대학, 광명지식상점, 평생학습축제, 장애인 평생학습 강좌 등 평생학습원 220개 프로그램을 비롯해 여성비전센터 181개, 도서관 160개, 인생플러스센터 34개 등 31개 기관 1076개 강좌를 ‘광명e지’에서 접수했다. 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평생학습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광명e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교육정보를 분야별, 기관별로 검색 선택할 수 있고 수강신청과 온라인 결제, 교육 이력 및 수료증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광명=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

인천항 몰리는 국제 크루즈… 올들어 4번째 입항

7만5000t급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미국 노르웨지안 모항 크루즈 노르웨지안 스피릿호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지난 12일 입항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12일) 오전 7시 승객 2000여 명, 승무원 900여 명을 태운 7만5000t급 크루즈선 노르웨지안 스피릿 호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노르웨지안 스피릿 호는 올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항공-항만 연계 크루즈(이하 플라이트앤크루즈·Flight&Cruise) 5항차 중 4번째 크루즈다. 크루즈는 오전 7시부터 크루즈 여행을 마친 승객 2000여 명을 모두 하선시킨 뒤, 같은 날 오후 여행을 시작하는 새로운 승객 2000여 명을 태우고 제주-일본을 향해 출항했다.

지난해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연계 크루즈가 총 2척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크루즈 탑승 인원도 지난해 총 675명에서 올해 3분기까지 3항차 565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해 관광 안내 홍보관, 터미널-인천 관광지 간 셔틀버스, 인천 시티투어버스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항차에는 상상플랫폼으로 향하는 셔틀버스 신설과 관광객 짐 보관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플라이앤크루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이 국내 관광 후, 인천항에서 출항(모항) 또는 일부 승객이 여행 도중 참가(준모항)하는 형태로 기항(보통 4~5시간)에 비해 국내 체류시간이 길어 관광 활성화와 선용품 구입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이런 플라이앤크루즈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인천관광공사·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등에 참가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과 22만5000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터미널을 갖춘 기항지 ‘인천’을 적극 홍보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처음 플라이앤크루즈 2항차를 유치했으며 올해 5항차, 내년에는 11항차를 유치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